

한변,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 맞아 제3회 북한인권상 시상

일 시 : 2020. 9. 4.(금) 10:00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 한변은 2013. 9. 10. 창립된 변호사단체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립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을 위해 노력하던 중 2018년 북한인권상을 제정하고 매년 북한인권법 시행일인 9월 4일 시상하고 있다.
2. 북한인권법은 이미 2016. 3. 3. 제정되어 9. 4.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설립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인권대사도 임명되지 않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파행운영되고 있으며, 남북인권대화도 추진되지 않는 등 거의 사문화(死文化)되어 있다. 나아가 북한주민의 ‘알 권리’ 실현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많은 인권단체들이 정부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사무검사 등의 압박을 받고 있다.
3. 우리는 결코 세계 최악의 인권지옥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고, 어떠한 압력에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다. 이에 한변은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이 되는 올해 9월 4일에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기리고 헌신의 기록을 역사로 남기기 위해 제3회 북한인권상을 시상한다.
4. 수상자 선정을 위해 한변에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국군포로나 전시·전후 납북자 또는 이산가족의 각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공헌한 단체나 개인을 북한인권상 후보로 추천받는다. 추천인의 자격이나 추천 방식은 특별히 제한이 없으며, 오는 8월 25일(화)까지 아래 수신처로 보내줄 것을 바라고 있다.

※ 수신처 Tel 02-599-4434, Fax 02-599-4435 E-mail hanbyun@hanbyun.or.kr

2020. 8. 1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